



‘미’의 기준을 재고해보자

조이 여울/여성신문 기자

예전에 나는 포토샵 강좌를 들으며 모 공공 기관의 데이터관리 업무중에서 사진편집 일을 도왔던 적이 있다. 내가 맡은 부분은 이미지 보정 작업이었는데 모니터에 사진이미지를 몇 장 띄워놓고 훼손된 부분을 손질하거나 규격에 맞게 크기를 조정하는 일이었다.

머칠을 작업하다 나는 재미있는, 혹은 심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됐다. 이미지 데이터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원래 이미지를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진 상태가 좋으면 그냥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도만 해주면 될 터이다. 그런데 가만 보니 함께 작업하는 사람들은 사진의 주요 이미지, 즉 사람의 얼굴을 놓고 이른바 ‘성형’을 시키고 싶어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사진 속 인물들은 수천 명에 달하지만 각기 다른 모습의 나름대로 개성을 가진 이들이다. 그러나 사진 보정을 하는 사람들은 한숨과 웃음을 섞어가며 “세상에, 이렇게 생기다니...”라고 말하고는 이내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해 인물의 생김새를 변화시켜가기 시작한다.

가령, 얼굴의 점을 뺀다든지, 눈썹을 진하게 칠한다든지, 양쪽 눈의 크기가 다르면 한쪽 눈을 크게 부풀려 비슷하게 맞춘다든지, 얼굴 색도 하얗게 하고, 심지어 각진 얼굴형을 둥그스름하게 바꾸기도 하는 것이다.

사진을 편집하는 이들이 멸절된 사람의 얼굴을 굳이 변형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그 사진 속의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기준은 아마도 ‘미’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진 속의 얼굴

을 좀 더 ‘예쁘게’ 만들어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마다 개성이 있고 색깔이 있다면 그 ‘미’라는 기준도 다양하련만, 아쉽게도 그렇지가 못한 것 같다. ‘미’라는 기준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무엇이 없어야 한다’는 의식이 깔려있다. 점은 없어야 하고, 왼쪽 오른쪽이 균등해야 하며, 얼굴은 희고 탄력적이어야 하고, 눈썹은 짙고 고르게 가야하며, 얼굴형은 모가 나지 않아야 하고... 등등으로 말이다. 이렇게 정형화된 모델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있어야 할 것’을 만들어 넣고, ‘없어야 할 것’은 지워버리는 것이다.

한동안 ‘스티커 사진’과 ‘포토샵 편집 사진’이 젊은이들(특히 여성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의 하나도 그것이 얼굴을 ‘예쁘게’ 편집해주기 때문이다. 이들 사진들은 얼굴의 잡티는 거의 보이지 않고 얼굴형도 주위를 뺀양게 만들어서 무난하게 보이게끔 출력한다. 자신의 모습을 담은 것이 사진이건만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변형된(다른) 모습을 담아주길 바라는 것이다.

‘아름다움’이라는 말의 어감은 상당히 좋은 것이지만 막상 현실에서 적용되는 ‘아름다움’의 실체는 획일적이며, 무언가 결여된 것, 채우거나 바꾸어야만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무제인 것이다. 우리의 몸은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며 다양하고 생산적인 아름다움이 이미 우리에게 존재하는데, 끊임없이 획일화된 ‘미’의 기준을 쫓아가느라 자신을, 그리고 타인을 폄하하며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PPFK**